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텐센트, 2018년 가장 가치있는 중국기업 브랜드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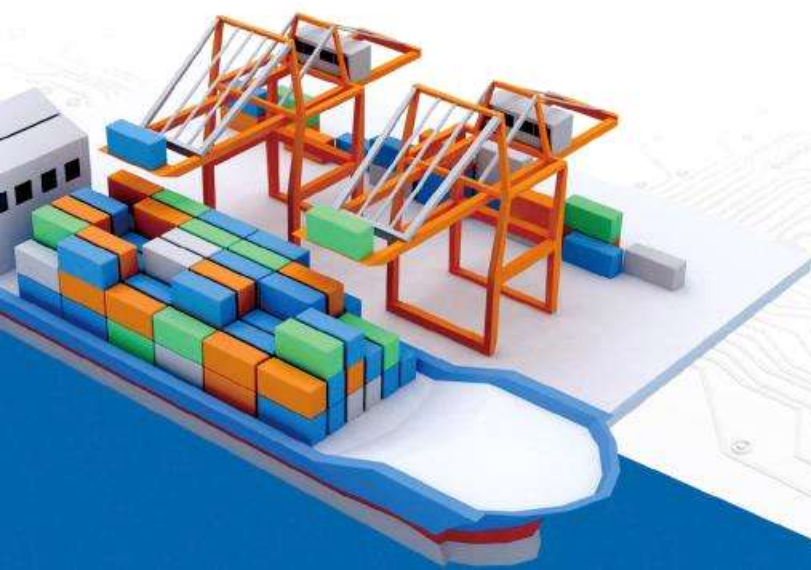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물류정책·산업동향

1. 노르웨이, 2050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감축
2. Farmstead사, 신선식품 부패손실 최소화하는 SI플랫폼 출시
3. 안트워프 항만공사 외항선 대상 AMP 설치 계약
4. 아마존, 인도 플립카트(Flipkart) 인수에 관심
5. 내륙물류시설 기반 성장 전략을 펼치는 Cosco社 행보 주목

명사 스피치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부터 자영업으로 뛰는 기사까지 공급이 너무 과잉인 상황입니다. 정부가 육송업계의 공급을 잘 조절해야 하는데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경쟁이 지속되면 물류서비스 품질이 하락하므로 정부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철용 DTC 대표이사
(2018. 4. 5. / 코리아슈핑가제트 인터뷰 기사)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텐센트, 2018년 가장 가치있는 중국기업 브랜드로 선정

2018년 가장 가치있는 중국 기업 브랜드 Top 100 (1~10위)

2018년 순위	브랜드	분류	브랜드 가치(2018) (단위:백만 US달러)	전년 대비 가치 변화
1	Tencent	기술	132,213	25%
2	Alibaba	소매	88,623	53%
3	China Mobile	전화공업	49,231	-15%
4	ICBC	은행	37,213	18%
5	Baidu	기술	24,990	5%
6	Huawei	기술	24,115	18%
7	Moutai	주류	23,175	43%
8	Ping An	보험	22,363	36%
9	China Construction Bank	은행	20,120	9%
10	Agricultural Bank of China	은행	16,158	9%

자료: <https://www.chinainternetwatch.com/23652/brandz-top-100-most-valuable-chinese-brands-2018/>

- 글로벌 브랜드 평가 플랫폼업체인 BrandZ는 '2018년 가장 가치있는 중국기업 브랜드 TOP 100'을 발표함
 - 이번 발표에 따르면, 중국 최대 규모의 IT기업인 텐센트가 브랜드 가치 1,322억 달러로 4년 연속 1위에 올랐으며, 전자 상거래 브랜드인 Alibaba는 전년 대비 53%의 뛰어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886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달성해 2위를 차지함

2018년 가장 가치있는 중국 기업 브랜드 Top 100 중 신규 진입 물류기업

					
	SF Express	YTO Express	Yunda Express	ZTO Express	STO Express
Top 100 Rank 2018	11	36	37	38	55
Category	Logistics	Logistics	Logistics	Logistics	Logistics
Brand Value	US\$ 14,650 Mil.	US\$ 2,844 Mil.	US\$ 2,603 Mil.	US\$ 2,601 Mil.	US\$ 1,810 Mil.



- 이번 중국기업 브랜드 TOP 100 평가에서는 특히 물류와 기술 분야 기업들의 진입이 주목됨
 - 이번 중국기업 브랜드 평가에서 11개의 중국 기업(물류분야 5개 기업 포함)이 새롭게 순위에 진입함
 -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및 징둥닷컴 같은 거대 인터넷 거물기업들은 소비자가 단일 통합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일상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물류, 보험, 여행 분야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www.chinainternetwatch.com, 2018.4.2.

공영덕 연구원

051-797-4778, ydkong6053@kmi.re.kr



노르웨이, 2050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감축

- 노르웨이 정부와 선주협회는 4월 20일 런던 환경회의에서 예정되어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회담에 앞서 2050년까지 노르웨이 해운의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움
 - 노르웨이 선대의 가치는 약 450억 달러(일본, 그리스, 중국, 미국 선대에 이어 세계 제5위)
 - 노르웨이 해운의 주된 업종은 해상, 가스, 화학, 자동차 전용선, 건화물, 원유 및 원유제품, 컨테이너
- IMO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2%가 국제해상운송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 2015년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는 해운분야가 포함되어있지 않음
 - IMO는 4월 9~13일 기간 중에 '기후변화 대응전략' 개발 예정
- 노르웨이 선주협회 Harald Solberg 회장은 Rooe Isaksen 통상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2050년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해야 한다"고 언급함
 - Solberg 회장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요구가 6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
 - Isaksen 장관도 해운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 시점이며, 선주협회의 주장에 동조
- 노르웨이 선주협회의 비전은 2100년까지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임
 - Solberg 회장은 노르웨이의 강력한 목표에 대한 IMO의 동의를 희망
 - IMO는 금번의 런던 환경회의에서 '해양환경 보호 위원회'가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초기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

■ 참고자료 : <https://www.reuters.com/>, 2018.4.10.

한성일 부연구위원

051-797-4781, han@kmi.re.kr



Farmstead사, 신선식품 부패손실 최소화하는 AI플랫폼 출시

- 미국 최초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디지털 식료품점인 Farmstead사는 AI기반 예측·분석 비즈니스 관리기능을 가진 새로운 B2B 플랫폼인 FreshAI를 출시했음
 - Farmstead사는 AI기반 디지털 마이크로 식료품점(AI-powered digital micro-grocer)으로 60분 만에 농장에서 냉장고로 신선한 현지 음식을 선별하고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슈퍼마켓, 카페테리아, 식품 생산 시설, 레스토랑, 식품 체인 및 편의점 등은 FreshAI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식품의 부패 손실이 감소되어 이익마진율이 높아짐
- 전통적인 식품기업들은 제품을 주문하고 폐기된 식품량을 파악하기 위해 여전히 펜과 종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Farmstead사의 공동창립자이자 CEO인 Pradeep Elankumaran씨가 말함
- 이러한 전통방식의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신선식품의 35~40%가 폐기돼 기업의 이익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급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FreshAI를 모든 식품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공급사슬은 최적화되고 식품 폐기물은 줄어 식품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향상됨
 - Farmstead사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FreshAI는 고객이 먹고 싶은 것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정확하게 현지 농장과 조달업체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지 AI기반 최적화 경로를 사용해 60분 이내로 고객에게 제공함
- FreshAI는 과거 판매량과 운영 데이터를 이용한 자가학습 AI기능을 통해 매일 판매되는 식품량과 현재 보관하고 있는 신선식품 재고량을 예측해 식품 관리자에게 권장 주문 수량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FreshAI를 이용하는 식품 사업자는 계정을 만든 후 인터페이스를 통해 과거 판매량 및 운영 데이터를 안전하게 업로드함
 - 업로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 매출 및 소비자 취향을 분석·예측해 각 제품단위(SKU)별 권장 주문 수량을 정확히 일별, 주간 단위로 제공함
 - 또한 FreshAI 플랫폼은 매주 가장 많이 폐기되는 식품에 대한 자동 분석 리포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데이터를 분석해 마진을 개선하기 위한 운영 권장사항을 제공함
-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Farmstead사는 FreshAI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신선식품의 소실율을 단 1년 만에 10% 이하로 감소시켰음

■ 참고자료 : refrigeratedfrozenfood.com, 2018.3.20.; projectnosh.com, 2018.3.23.

이연경 부연구위원

051-797-4682, eklee@kmi.re.kr



안트워프 항만공사 외항선 대상 AMP 설치 계약

- 안트워프 항만에 AMP 추가 설치를 위한 계약은 세계 항만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World Ports Sustainability Program, WPSP) 행사 기간 중인 지난 3월 체결됨
 - 안트워프 항만청은 Siemens, ASEA Brown Boveri, Schneider 전기, Actemium and Techelec과 안트워프항 입항 외항선을 대상으로 AMP 설치 계약을 체결
 - 또한 항만청은 안트워프 항의 항만 지역사회 공동체 Alfaport-VOKA와 AMP 설치 위한 협약을 체결했음
- 이전에도 일부 선박은 2018년부터 정박 시 육전 시설을 이용해 왔음
 - 바지선과 항만 서비스 선박은 육전을 활용했으나 외항선용 육전은 그 수가 부족했음
- 향후 안트워프 항에 접안하는 외항선 선박은 육전 사용이 가능해 짐
 -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분진을 감축하며 특히 CO₂와 분진이 현저히 줄어 지역 대기질 개선 효과가 기대됨
- 향후 몇 년간 AMP 설치 개발은 안트워프 항만청의 주요 사업으로 항만 지속가능성 향상에 중요한 요소임
- Alfaport-VOKA의 상무이사인 Stephen Vanfrechem씨는 “AMP 설비를 갖춘 선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운영, 기술,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항만에서의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히고 “이번 프로젝트가 AMP 사용률을 높이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함

■ 참고자료 : www.portstrategy.com, 2018.3.28.

김정현 전문연구원

051-797-4666, jh-kim@kmi.re.kr



아마존, 인도 플립카트(Flipkart) 인수에 관심

- 아마존이 인도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플립카트(Flipkart)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아마존의 경쟁사인 월마트가 플립카트의 일정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두고 아마존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도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플립카트를 두고 미국의 최대 업체들이 인도의 온라인 시장을 점유하고자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임
- 아마존의 적극적인 공략에도 불구하고 플립카트의 거래는 월마트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플립카트와 아마존의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나아가 아마존과의 거래가 성사될 경우 인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아마존에 의해 독점 장악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큼
 - 아마존, 월마트, 플립카트 관계자들은 해당 거래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음
- 지난 2월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재 월마트는 플립카트의 지분 40%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에 있으며, 이는 월마트가 성사시키게 될 해외 거래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짐
 -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이는 10년 만에 전자상거래 업체가 세계 최대의 오프라인 기업을 확보하게 되는 사례가 될 것임
 - 추후 월마트는 주식 매입을 통해 플립카트의 지분을 추가 매입할 예정임
- 이번 거래는 인도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아마존에게도 상당한 도전이 될 것임
 - 이미 아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아마존은 온라인 식품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인도에 투자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플립카트는 2007년 아마존 직원에 의해 설립됐으며, 현재는 인도 온라인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음
 - 아마존이 책, 스마트 폰 등 판매되는 제품을 다양화시킨 것처럼 플립카트도 동일한 판매 전략을 내세웠으며, 그 결과 인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마존보다 플립카트가 더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플립카트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Tiger Global Management, eBay, Microsoft 등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s://www.cnbc.com>, 2018.4.4.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내륙물류시설 기반 성장 전략을 펼치는 Cosco社 행보 주목

- Cosco社は 최근 몇 년 동안 내륙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의 물류시장을 공략하는 행보를 보임
 - Cosco사는 내륙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및 확보를 바탕으로 글로벌 물류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고 있어 타 선사와 다른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Cosco사가 확보한 항만터미널, ICD 등 내륙물류시설이 위치한 곳을 분석해보면 일대일로의 주요 거점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 세계 곳곳의 내륙물류시설 확보를 통해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특히 일대일로의 주요 루트에서 발생하는 화물에 대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임
 - Cosco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대일로의 주요 루트와 맞물린 자사의 내륙물류시설을 바탕으로 아시아, 유럽 등 주요 물류시장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신흥시장 등 신규 물류시장 진출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며, 일대일로 덕분에 일종의 우산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 예를 들어 일대일로의 주요 루트 내 발생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약 62%를 Cosco사가 점유하고 있으며, 115만 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한 바 있음
- Cosco사의 내륙물류시설 기반 성장 전략은 2017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향후 전 세계 공급사슬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청도항을 시작으로 그리스 피레우스, UAE 아부다비, 벨기에 제브뤼헤 등 전 세계 주요 거점의 내륙물류시설을 확보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유럽의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물류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은 중국-유럽 간 철도운송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됨
 - 2017년 기준 중국-유럽 간 철도화물은 전년 대비 134% 증가했으며, Cosco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국경에 위치한 KTZE-Khorgos Gateway에 대한 지분 24.5%를 인수한 바 있음
- 타 선사와 구분되는 Cosco사의 성장전략은 글로벌 공급사슬 내 내륙물류시설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들 시설이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www.joc.com/maritime-news, 2018.4.6.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